



3면

"홍범도 장군, 우리 민족모두의 영웅"

전주매일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음 7월 12일) 제28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도내 방방곡곡 누빈다

도, 고용부 공모 '취업지원 서포터즈 운영' 사업비 1억 확보 내달부터 운행 접근성 문제로 제공 못받는 구인·구직자들 대상 12월까지 서비스 제공

전북도가 전주기전대학교와 현장 및 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부터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행한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전북 취업지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일자리버스 운영, 청년취업 동호회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 버스'는 시·군 일자리센터가 없거나 접근성 문제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구인·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올해 12월까지 30회 이상 운영

해 도내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교육과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들은 '일자리 버스'라는 색다른 공간에서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직업탐색, 심층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직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인기업에도 우수인재를 알선한다. 특히, 대학교로 찾아가 학과 특성에 맞는 구직상담 및 심층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전 면접체험 등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전북도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고용창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청년 취업 동호회를 지원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취업동호회 15개 팀을 선정해 자격증 교육비, 스터디 활동비, 면접사진 촬영비 등 구직활동 비용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용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도는 누구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가운데)과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심용현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은 18일 전주시정실에서 '2023 전주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2023년 8월 전주시

시, 배드민턴협회와 성공 개최 위한 협약 체결 실내체육관서 개최... 74억 이상 경제 활성화 효과

2023년 전주에서 세계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한국에서 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심용현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은 18일 전주시정실에서 '2023 전주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북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와 가족 등 국내·외 50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하는 페스티벌 형식의 배드민턴 최대 축제다.

협약을 통해 전주시는 경기장과 연습장, 숙소를 확보하고 선수단 안전을 지원하면서 대회 개최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공동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세계연맹 규정에 따른 경기 진행과 외국선수단 초청·수송, 대회 중계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의 경우 경기운영 및 진행 등 전반적인 지원과 경기진행 시설 설치·안내, 대회 운영요원 선발,

선수단 의무팀 지원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회는 2023년 8월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세계배드민턴연맹과 협의해 결정된다. 경기는 연령별 9개 부문에서 ▲남자단체 ▲여자단체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이 펼쳐진다.

시는 이 대회 유치로 통해 74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제방송배급사에서 세계 50개국으로 대회를 배급하는 만큼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회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매력을 알리면서 배드민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 계획이다.

이에 앞서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여러 차례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낸 시는 즐기고 맛보고 휴식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지난 2011년 캐나다(밴쿠버),

2013년 터키(앙카라), 2015년 스웨덴(헬싱보리), 2017년 인도(코친케랄라), 2019년 폴란드(카토티체) 등에서 2년 주기로 개최됐다. 올 11월 스페인 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는 코로나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은 "역대 배드민턴 올림픽 영웅들을 다수 배출한 배드민턴의 성지 같은 고장 전북 전주에서 2023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유치를 노력해준 전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도 큰 획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자라가 공인하는 배드민턴의 성지인 만큼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세계 50여 개국의 배드민턴 영웅과 동호인들이 전주를 가슴속에 새기고 갈 수 있도록 경기 인프라는 물론 관광여건과 환대서비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이 63개 클럽, 6000여 명에 달하는 등 인구 대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김동문, 하태권, 박주봉 등 다수의 배드민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학교가 가장 안전... 믿고 지지해달라"

김승환 교육감, 2학기 개학 맞아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호소 "국가 차원 방역 대책 최대한 존중... 등교수업 원칙 지켜나갈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2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학교를 믿고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선생님, 행정직원과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한 몸이 되어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방역 대책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면 등교수업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화로웠던 일상이 뒤바뀌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소중한 삶의 즐거움마저 사라진 지 오래이다"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취약계층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이들은 각종 범죄는 물론 가정폭력에 더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학습결손을 겪게 되고 그 결과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선생님, 행정직원과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한 몸이 되어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방역 대책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면 등교수업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초래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등교수업이기 때문이다.

/정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